

## 비트코인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시장의 진짜 흐름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과 공포 심리 속에서 방향성을 잃은 듯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이번 사이클은 끝났다”, “더 이상 강세장은 없다”는 비관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만 바라보면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단순 가격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와 자금 흐름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구조를 분석해보면, 지금은 붕괴 국면이 아니라 대형 자본이 조용히 물량을 흡수하는 중간 조정 단계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주 인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 현재 흐름 한 줄 정의

단기 변동성으로 혼란스러운 조정 국면이지만, 장기 온체인 데이터는 비트코인 시장이 여전히 성장 기반 위에 있으며 대형 자본이 단기 매물을 흡수하는 중간 조정 단계임을 시사하고 있다.

---

### 비트코인 시장 구조 분석: 왜 아직 시즌은 끝나지 않았는가

#### 1. 비트코인 바닥 모델은 계속 우상향 중이다

비트코인의 장기 구조를 볼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플로우 컴파운딩(Flow Compounding)’ 기반의 바닥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허용하는 최저 가격 자체가 복리 형태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과거에는 큰 폭의 하락이 가능했던 구간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두꺼운 지지 영역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락의 바닥이 계속 높아지는 구조적 성장 자산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공포는 반복되지만, 장기 구조는 지속적으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 2. 200주 이동평균선은 12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다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평균선은 장기 추세를 판단할 때 가장 강력한 기준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지표가 지난 12년 동안 연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하락 추세를 유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붕괴처럼 보였던 순간에도 결국 장기 평균은 우상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기초 체력이 단기 뉴스나 공포 심리보다 훨씬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차트 움직임에 흔들리지만, 실제 시장의 장기 자금은 이런 장기 추세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0주 이동평균선은 단순 기술적 지표를 넘어, 비트코인 시장 전체의 구조적 신뢰를 보여주는 핵심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3. 공급 쇼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현재 온체인 데이터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공급 감소입니다.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약 60% 이상의 비트코인이 1년 이상 이동하지 않은 장기 보유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래소에 남아 있는 비트코인 유통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시장에서 실제 매도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며, 공급 쇼크 (Supply Shock)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강세장 직전에도 유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은 단기 투기 자본보다 장기 투자자의 비중이 훨씬 높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단순 투기 단계가 아니라 점차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 4. 단기 보유자 물량을 대형 자본이 흡수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 중 하나는 단기 보유자의 평균 매수 단가(STH

Cost Basis)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이 가격대는 약 78,400달러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 가격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급격한 붕괴 없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버티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기 보유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동시에 대형 자본이 그 물량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ETF 자금 유입과 기관 투자 확대 흐름까지 고려하면, 현재 조정은 시장 붕괴라기보다 강세 추세 속 중간 조정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다시 78,400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된다면, 이는 새로운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지금 개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봐야 할 핵심 포인트

### 1. 78,400달러 돌파 여부

현재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단기 보유자 평균 매수 단가인 78,400달러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를 다시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시장 심리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는다면 조정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단기 가격 변동보다, 시장이 이 핵심 가격대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2. 거래소 물량 감소와 장기 보유자 증가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드는 현상은 단순 데이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당장 매도하기보다 장기 보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공급 부족 현상을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만약 앞으로도 거래소 유통 물량 감소와 장기 보유 비중 증가가 계속된다면, 향후 가격 상승 압력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글로벌 거시 환경도 비트코인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금융 환경 역시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I 산업 투자 확대는 대규모 유동성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긴장 완화에 따른 유가 안정은 금융시장 전체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한 제도권 자금 유입은 시장 신뢰를 높이며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장은 단순한 암호화폐 투기장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과 기관 자금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금융 자산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의 전략 정리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공포에 휩쓸려 무작정 매도할 시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 데이터는 대형 자본이 단기 약세 구간을 활용해 조용히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요소는 현재 시장이 단순 붕괴가 아니라 중간 조정 국면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 장기 바닥 가격의 복리 상승 구조
- 12년간 유지된 200주 이동평균선
- 거래소 물량 감소와 장기 보유 증가
- 단기 매물의 대형 자본 흡수 현상

따라서 개인 투자자라면 단기 가격 움직임에 과도하게 흔들리기보다, 온체인 데이터와 거시 환경 변화를 함께 관찰하며 중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비트코인의 78,400달러 재돌파 여부
- 거래소 유통량 및 장기 보유 비중 변화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결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 있지만, 실제 온체인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구조는 여전히 견고하며, 공급 감소와 기관 자금 유입은 오히려 시장의 기반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기 뉴스와 공포가 아니라, 시장 구조와 자금 흐름을 얼마나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는가입니다.

나는 지금 시장을 '끝난 시장'이 아니라, 대형 자본이 조용히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중간 조정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야말로 개인 투자자가 단기 감정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시각을 유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